





1000km를 내달리는 '몽골더비', 무게 1톤의 썰매를 끌고 200m를 달리는 일본 '반에이 경마', 작은 체구가 특징인 제주마로 실행하는 유일한 경주인 '제주경마',100년 역사를 자랑하는 프랑스의 마차경 주 '프리다메리크(PRIX D´AMÉRIQUE)'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전 세계적으로 독특한 문화적 배경과 역사를 지닌 경마 대회가 열리고 있다.

1000km 몽골더비, 열흘간 극한 경주

절반 이상이 완주 포기…악명 높아 日 반에이 경마 1톤 썰매 끌고 경주 유럽·북미·호주 등 마차 경주 인기 한국은 작은 체구 과하마 제주경주 종주국 영국에 수출…경쟁력 증명

는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스포츠다. 달 리는 트랙의 종류만 다를 뿐 대부분의 경 주가 비슷비슷해 보이지만, 의외로 나라 별로 독특한 방식이나 테마로 진행하는 이색 경마들이 많다.

●1000km 몽골더비 vs 200m 日 반에이

말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남다른 몽골 에는 최장거리 경주가 있다. 기마전술로 세계를 정복했던 징기스칸의 업적을 기 리기 위해 매년 열리는 '몽골더비'다. 무 려 1000km를 달리는데, 수십 명의 참가 자들이 약 25마리의 말과 함께 열흘간 경 주를 한다. 단순히 경주거리만 긴 것이 본 홋카이도 '반에이' 경마는 일반적인 경

아니라 코스도 난이도가 엄청나다. 시작 직전 공개되는 험준한 야생코스와 제대 로 길들여지지 않은 경주마 등 익스트림 한 요소들 때문에 참가자 중 절반 이상 이 도중에 완주를 포기할 정도로 악명이 높다.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7월에 열 리는 '나담축제'도 이곳의 경마문화를 말 할 때 빼놓을 수 없다. 올해로 100년의 사람과 말이 하나가 되어 달리는 경마 역사를 자랑하는 축제로 음악과 함께 레 슬링, 양궁, 경마 경기를 즐긴다. 나담축 제에서 경마는 마령에 따라 여섯 종목으 로 나누어 실시하는데. 역시 15~30km 를 달리는 초장거리 경주다. 몸무게가 가 벼울수록 유리해 주로 6~8세의 어린이 가 기수로 출전한다. 시상식에서는 대통 령이 1위에서 5위까지의 조련사, 기수, 경주마에게 시상한다. 우승마는 '만 마리 말 중 으뜸'이라는 의미의 '투멩 에흐'라 는 호칭이 부여되며 몸값 또한 백배 이 상 상승한다.

> 이와는 반대로 불과 200m 거리를 사 람보다 느리게 달리는 경마도 있다. 일

주마 무게의 두 배에 달하는 거구의 말 들이 약 1톤의 철제 썰매를 끌며 두 개의 고개를 넘는 경주다.

1900년대 초 농경마의 힘과 가치를 시 험하던 것에서 유래했는데, 통상 코끝을 기준으로 도착을 결정하는 다른 경마와 달리 반에이 경마는 마차의 끝이 결승점 을 통과하는 순간이 도착시간이다.

●마차경주, 프랑스 등 서구권서 활발

일본 반에이 경마처럼 기수가 말을 타 지 않는 경마가 또 있다. 바로 마차경주 다. 의외로 마차경주는 더러브렛 경마 다 음으로 많이 보급돼 경마에서는 꽤 대중 화된 레이스다. 1920년부터 프리다메리 크(PRIX D'AMÉRIQUE) 대상경주를 열고 있는 프랑스를 비롯해 유럽 전역과 북미, 호주 등 서구권을 중심으로 마차 경주가 열리고 있다. 영화에서처럼 창과 방패를 들진 않았지만 아슬아슬한 간격 으로 바퀴를 굴리며 질주하는 모습은 색 다른 긴장감을 전해준다.

일반 경마보다 안전하다는 것도 마차 경주의 특징이다. 스탠다드브렛, 프렌치

트로터 등 마차경주용 경주마 품종은 몸 통이 길고 다리가 짧아 마차를 끌기에 적 합할 뿐만 아니라 주행 시 일반경마보다 느린 보법인 속보로 달리기 때문에 부상 과 사고율이 낮다.

우리나라에도 이색경마가 존재한다. 바 로 제주경마다. 제주경마공원에서는 천 연기념물 제347호인 제주마의 혈통보전 을 위해 제주마 경마를 시행한다. '과하 마(果下馬)'로 불리는 체구가 작은 제주 마의 달리는 모습은 일반적인 더러브렛 경주마에 비하면 종종걸음으로 보일만큼 앙증맞다. 제주마는 성질이 온순해 물거 나 차는 일이 적고, 내병성과 지구력이 특히 강하다. 발굽도 단단해 장제를 하 지 않아도 굽이 갈라지는 일이 없다.

제주마 경주는 이색경주로서의 경쟁력 을 인정받아 한국마사회는 1월 경마 종주 국 영국과 경주실황 수출계약도 체결했 다. 이미 세계 전역으로 수출 중인 한국 더러브렛 경마에 이어 천연기념물 제주 마의 이색경주도 머지않아 해외에서 즐 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마사회, 기승능력인증시험 자율시행 시설 모집

11일까지 호스피아 홈페이지 접수

한국마사회는 11일까지 기승능력인증 시 험을 자율시행할 민간 승마시설(협력승마

시설)을 모집한다. 기승능력인증제는 한국 마사회가 국내 말산업 표준화를 위해 추진 하는 제도로 기승능력과 말, 승마에 대한 이해 등을 평가해 등급을 부여한다. 인증

제 시행은 승마시설 사전 수요조사 형식으 로 진행되며 모집이 끝나면 현장점검을 거 쳐 11월까지 시험이 진행된다. 희망하는 시 설은 초·중급 수준인 4~7등급 인증에 참여 할 수 있다. 호스피아 홈페이지에서 신청 하면 된다. 한국마사회 그린승마존(협력승 마시설)에 선정된 승마시설이 신청대상이

며 영업배상책임보험과 함께 기승시험장, 말, 응시자 등을 갖추어야 한다. 선정된 승 마시설에는 한국마사회에서 자격심사를 위 한 심사위원을 파견하고 구급차 및 응급 구 조사 등을 지원한다.

모집과 관련된 사항은 호스피아 홈페이 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수진 기자

경마

9

*스로*초동아 2021년 5월 7일 금요일

경마에서 유래된 스포츠용어들



영국의 경주 '엡섬더비'를 그린 화가 테오도르 제리코의 1821년 작품. 1789년 영국의 더비 백작이 개최한 엡섬더비는 현대 스포츠 에 '더비'라는 용어를 남겼다.

英 3세마 경주서 유래된 '더비' 美경마 첫 사용 '트리플크라운'

'잠실 더비', '맨체스터 더비'….

'더비'는 가까운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 두 팀간의 라이벌 경기를 일컫는 말이다. 우리에겐 잠실 서울종합 운동장을 홈구장으로 사용하는 프로야구팀 LG트윈스와 두산베어스간의 맞대결인 '잠실 더비'가 익숙하다.

사실 더비 매치는 경마에서 비롯됐다. 경마는 기원전 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오랜 역사 덕에 현대 스포츠에도 많은 흔적을 남기고 있다. 경마에서 비롯된 스포츠용어 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 '더비'의 기원은 경마, '트리플크라운'은?

1789년 영국의 더비 백작이 3세마들을 모아 대결시키 는 경주를 기획했고, 엡섬다운스 경마장에서 첫 더비경 주가 개최됐다. 이는 오늘날까지 '엡섬더비'로 불리고 있 다. 연령 제한이 있기에 경주마에게는 딱 한 번밖에 우승 의 기회가 없어 경마팬들의 인기를 모았고, 최고의 경주 로 부상했다. 실제로 영국의 엡섬더비는 1·2차 세계대 전 중에서도 멈추지 않았을 만큼 영국인의 자부심이 담 긴 대회다.

미국은 켄터키더비와 관련해 '트리플크라운'이라는 단 어도 만들어냈다. 한 경주마가 켄터키더비와 프리크니 스 스테이크스, 벨몬트 스테이크스 세 경주를 모두 우승 하면 트리플크라운의 영광을 안게 된다. 이는 1930년 미 국의 경주마인 갤런트 폭스가 세 경주에서 모두 우승하 고 그의 자마 오마하가 또다시 1935년 세 경주를 싹쓸이 하자 한 스포츠기자가 이를 '트리플크라운'이라고 기술 한 데서 시작됐다.

경기 시즌 내내 1등을 차지하며 우승하는 것을 '와이 어투와이어(wire-to-wire)'라고 한다. 특히 골프에서 많 이 사용되는 용어로 1라운드부터 4라운드까지 선두를 내주지 않고 우승하는 것을 뜻한다. 와이어투와이어의 유래는 1700년대 영국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경마 경기에서 우승자를 판별하기 위해 출발선과 결승선에 철사(wire)를 설치했다고 한다. 1등으로 달린 말이 가장 먼저 이 철사를 끊게 되기 때문에 '출발선의 철사에서부 터 결승선의 철사까지(wire to wire)' 1등을 지켰다는 의미다.

상대선수의 실격 또는 부상으로 인한 기권승을 '워크 오버'라고 부른다. W/O라고 표기하기도 하는데 부상으 로 인한 기권이 잦은 테니스에서는 흔하게 쓰이며, 축구 나 농구경기에서도 종종 볼 수 있다. 이 역시 경마에서 유 래됐다. 경마경주에서는 단 한 마리만이 남더라도 코스 를 완주해야 한다. 끝까지 경주로를 걸어야하기에 이 규 정을 워크오버라고 부른다. 이수진 기자 sujinl22@donga.com

골프

'쩐의 전쟁' 프리미어골프리그, 골프판 '슈퍼리그'로 끝나나

사우디 주도 최소 상금 112억원 정상급 선수 48명에만 출전 자격 연간 18개 대회…내년 9월 개막 존슨·켑카·미켈슨 등 출전 제안 PGA커미셔너 "참가 땐 영구제명"

"나는 PGA 투어에서 이룬 업적과 역사 를 물거품으로 만들고 싶지 않다."

저스틴 토마스(미국)는 단호했다. 최근 그는 세계랭킹 1위 더스틴 존슨을 비롯해 브룩스 켑카, 필 미켈슨 등 세계 정상의 선 수들과 마찬가지로 프리미어골프리그(PG L)로부터 거액의 출전 제안을 받은 것으로 문학적인 금액을 제안하는 등 선수들과 접

PGL은 최근 세계 골프계를 후끈 달구고 있는, 이른바 '골프 슈퍼리그'이다. 사우디 아라비아가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리 그로 정상급 48명에게만 출전자격이 주어 진다. 컷 탈락 없이 사흘간 경쟁해 순위를 가린다.

1000만 달러(112억 6000만 원)에 달하는 '돈 잔치'대회다. 2022년 9월 개막이 예정돼 있다.

PGL 측은 새로운 프로골프투어를 준비 하는 과정에서 정상급 선수 영입을 위해 천 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미국프로골프(PGA)투어, 유러피 언투어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BBC 등 영국 매체에 따르면 제이 모나한 PGA 투 어 커미셔너는 6일(한국시간) "프리미어 골프리그 참가자는 PGA 투어에서 영구제 명할 것"이라고 엄중 경고했다. 당근책도 연간 18개 대회를 개최하며 상금은 최소 내놨다. 올해 새롭게 나온 '플레이어 임팩 트 프로그램'을 통한 보너스 시스템이다. 4000만 달러(450억 원)를 상위 10명에게 나누어 주는 프로그램으로, 흥미로운 것은 성적이 아니라 팬들의 인기 순위가 기준이 라는점.

프리미어골프리그는 앞서 유럽 축구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슈퍼리그와 비교돼 더욱 화제가 되고 있다. 잉글랜드, 스페인, 이탈 리아 12개 구단이 독자적인 유럽축구 리그 (슈퍼리그)를 창설하려다 국제축구연맹(F IFA), 유럽축구연맹(UEFA)과 팬들부터 철 퇴를 맞은 사건이다. 이들 단체 역시 '슈퍼 리그 출전자 국가대표 자격박탈', '슈퍼리 그 참가구단 리그 퇴출' 등 강력한 제재를 예고했고 결국 12개 구단 중 10개 구단이 불참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PGA 투어 선수위원장이기도 한 로리 매 킬로이(북아일랜드)는 이를 의식한 듯 "유 럽축구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봐야 한 다. 프리미어골프리그에 출전하는 선수들 은 명예가 아닌 돈을 좇는 사람들"이라고 비난했다. 김도헌 기자 dohoney@donga.com



저스틴 토마스

로리 매킬로이